

핀테크로 지평 넓히는 이통사

SKT, 연 2% 자유입출금 통장으로 테크핀시장 ‘노크’



모델이 'T이득통장'을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

핀크·KDB산업은행과 맞춘
‘T이득통장’ 핀크앱서 출시

SK텔레콤은 핀크, KDB산업은행과 손잡고 최대 2%의 금리를 복리로 제공하는 자유입출금 금융상품인 ‘T이득통장’을 오는 15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T이득통장은 자유입출금 통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최대 2%의 금리를 복리로 제공하는 통신사 주도의 ‘테크

핀’ 상품이다. SK텔레콤과 핀크 측은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들며 시중 금융상품의 금리가 지속 낮아지는 추세에서 2% 금리는 국내 1금융권이 운영하는 자유입출금 예금 상품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T이득통장은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SK텔레콤 가입자라면 핀크앱을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핀크앱 실행 후 T이득통장 상품을 선택한 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으로 비대면 인증을 마치면 가입이

완료된다. 가입 이후에도 별도 은행앱 설치 필요없이 핀크앱을 통해 입출금 관리를 할 수 있다.

SK텔레콤 이동통신 회선을 유지하고 KDB산업은행 마케팅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T이득통장 예치금 200만원까지 연 2%의 금리를 적용 받게 된다. 200만원을 초과한 예치금에 대해서는 0.5%의 금리가 적용된다.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

단, SK텔레콤 이동전화 회선을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경우 금리는 예

치금액과 관계없이 0.1%로 조정된다.

핀크는 T이득통장 출시를 맞아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T이득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2억 원을 지급하는 ‘도전 2억’ 프로모션을 핀크앱을 통해 인라 사전 공개했다. ‘도전 2억’ 프로모션은 T이득통장에 가입하는 고객 중 만 19세 이상이면 자동으로 응모가 되며, 프로모션 종료일까지 누적 가입자 규모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종이 안녕~” KT, KB손보에 모바일 통지 서비스

앱 설치 없이 전자안내장 수령
발송 비용 절감, 개인정보 보호

KT는 KB손해보험에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KB손해보험에 제공하는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보험계약자의 연계정보(CI)와 통신 3사의 최신 이동전화번호 정보를 매칭해 모바일 메시지로 안내장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KT 이용자뿐 아니라 타 이동통신사 사용자도 별도 앱 설치 없이 KB손

해보험에서 발송하는 전자 안내장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통지의 발송 정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블록체인 유통증명 시스템에 보관하게 돼 기존 일반 등기우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간 보험사에서는 보험 계약자의 권리 변동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종이로 된 등기우편을 사용해왔으나 고객이 부재중이거나 부정확한 주소 등 사유로 모든 고객에게 통지문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웠다.

KB손해보험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고자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회사는 모든 고객에게 시간과 주소에 상관 없이 통지문을 전달할 수 있고, 우편발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KB손해보험 이용자는 가족이나 타인이 아닌 본인만 이동전화를 통해 통지문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KT는 공공기관에 이어 손해보험업계에도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도입하며 향후 서비스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KT는 2018년부터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서울시 등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송달비용 절감과 행정업무 효율화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해부터는 보험회사와 함께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상담업무를 자동화하는 AI 챗봇, 사람이 쓴 글자 등을 자동으로 읽어주는 AI 문자인식(OCR) 등을 제공했다. 특히 KT AIOCR 서비스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인식 정확도를 높여 보험청구 및 계약관리 등의 업무에도 적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KT 직원이 KB손해보험에 적용되는 모바일 통지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KT

대우조선해양, LNG 바지선 2척 수주

러시아지역서 9013억 규모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LNG-FSRU 등 LNG 관련 선박을 연이어 수주하며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러시아지역 선주로부터 36만㎡급 LNG-Barge(액화천연가스 저장 및 환적설비) 2척을 약 9013억 원에 수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선박은 오는 2022년말까지 설치지역으로 출항할 예정이다. 또 이번 계약에는 추가 옵션물량 2척이 포함돼 있어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LNG-Barge는 해상에서 쇠빙LNG



지난 5일 대우조선해양 서울 사옥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LNG-Barge 건조 계약식에서 (왼쪽부터) 대우조선해양 박형근 전무, 이성근 사장, 권오의 전무가 계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운반선으로부터 LNG를 받아 저장한 후 일반LNG운반선으로 하역하는 기

능을 가진 설비로 해상에 떠있는 LNG 터미널이다. 이 설비는 향후 러시아 무르만스크와 캄차카 지역에 설치돼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 설비가 설치되면 북극해에서 생산된 LNG를 유럽과 아시아지역으로 훨씬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운송하는 LNG운반선의 운영비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약으로 대우조선해양은 LNG운반선, 쇠빙LNG운반선, LNG-RV, LNG-FSRU, LNG-FSU, LNG-FPSO 등 LNG 관련 설비의 풀라인업을 완성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쇠빙LNG운반선, LNG-RV, LNG-FSRU, LNG-FPSO 등은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제품들로 LNG관련 분야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48형 올레드 TV.

/LG전자

LG 48형 올레드 TV, 해외서 잇단 호평

영 리뷰 매체 “진정한 게임 체인저”

LG전자 48형 올레드 TV가 벌써부터 각지에서 찬사를 받고 있다.

8일 LG전자에 따르면 최근 출시한 LG 올레드 TV 48형은 영국의 TV 리뷰 전문매체 ‘HDTV테스트’로부터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는 극찬을 받았다. “시장에서 최고의 게이밍 디스플레이가 될 것”이라며 “모든 기능이 게이머들에게 매력적일 것”이라고도 평가를 받았다.

영국 IT 매체 ‘T3’도 “게이밍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호평했다. “플레이스테이션5(PS5) 및 ‘엑스박스 시리즈X’를 위한 최상의 모든 기능을 지원한다”며 “게임 모드에서 기본 응답 시간은 지금까지 테스트한 제품 중 최고의 수준”으로도 얘기했다. “올해 대부분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제품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들었다.

미국 IT 매체 ‘디지털 트렌드’도 “LG 올레드 TV(48CX)가 게임을 하기에 멋진 제품일 수 있게 하는 것은 화질”이라며 “CES 2020에서 봤던 어떤 모니터도 OLED의 명암비와 생동감 넘치는 컬러를 능가할 수 없다”고 감탄했다. 또 “작은 거실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하고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해도 과하지 않아 거실과 데스크톱의 간극을 좁혀주는 제품”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미국 유력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도 “잠재 소비자들에게 LG OLED TV 제품의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미국 IT 매체 ‘AVS포럼’에서도 “게이머들이 꿈꿔온 스크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기대를 받았다.

LG 올레드 TV 48형은 중형급 크기로 작은 공간에서 부담없이 사용 가능한 제품이다. 유럽과 아시아 등 거주 공간이 좁은 지역에서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김재우 기자 juk@

LGU+, 소상공인에 통화연결음 무료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여부 안내

LG유플러스는 오는 8월까지 전국 자영업 또는 중소기업의 매장에 거는 전화에 방송인 백종원의 목소리로 녹음한 ‘통화연결음’과 ‘우리매장알림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대기업 매장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영업장과 골목상권



모델이 ‘통화연결음’과 ‘우리매장알림메시지’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가 불분명해서 고객들의 불편을 겪었다.

LG유플러스가 무료로 제공하는 통화연결음을 설정하면 전화를 거는 고객은 “저희 매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라는 안내를 들 수 있다. 또 통화 종료 후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이용 가능 여부와 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 정보(업무시간·위치·전화번호 등)가 담긴 안내문자가 ‘우리매장알림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전달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매장에서는 LG유플러스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3개월간 진행된다. 9월부터는 유료로 전환된다. /김나인 기자